

## 두 렵돈

QT는 Quiet Time의 약자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 01 찬양과 기도



<오늘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통 82)

##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95

J. Swain, 1791

 내 사랑하는 자가...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 8:2)

MEDITATION: 11.8.11.8.

Wyeth's Repository of Sacred Music, 1813

Arr. by H. P. Main, 1869

보통으로



1.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에  
 2. 나의 사모 하시는 선한 목자 어느 길로 찾아가  
 3. 길도의 없이 거는 친넬은 들에 서 갈모든 천사도  
 4. 주도의 자비롭사 고화평한 열수 님은 성조차도  
 5. 나의 진정사 모하 는 예수 님은 성조차도 반갑고

밤낮 불리서 찬송을 드려 도 늘 아 심마 음 뿐 일 세  
 양의 무리 와 늘 함께 가 셔 기 원 함 계 하 실 까  
 이 리저 로 해 내 모 양 저 다 다  
 주 의 놀 운 진 리 의 참 소 망 은 오 지 직 주 예 수 가 화 답 하 도 다  
 나 의 생 명 과 나 의 참 소 망 은 오 지 직 주 예 수 가 화 답 하 도 다 아멘

O Thou, in whose presence

예수 그리스도

## 02 본문 읽기



마가복음 12:35 - 12:44

본문 말씀을 2~3회 읽은 뒤 문맥을 고려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에 밑줄 긋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6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37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38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39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1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 03 묵상하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십시오.

## 04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 05 기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나의 기도

# 두 렵돈

본문 : 마가복음(Mark)12:35 - 12:44 찬송가 95장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과 전 재산인 두 렵돈을 드리는 과부를 대조하여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보여줍니다.

-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35-37절 '다윗의 주'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주'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 다윗의 기도(시 110:1)를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라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메시아)께'라는 말입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적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보다 선재하신 분으로 다윗보다 크신 분입니다. 다윗의 위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모든 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편협하고 제한된 이해를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새롭고 낮은 예수님, 말씀을 발견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 41-44절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렵돈을 인정하십니다. 헌금의 액수보다 그 진정성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헌금은 많은 소유 중에 극히 일부를 드린 것이지만, 과부의 두 렵돈은 그가 가진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과부의 두 렵돈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낫다는 교훈의 본보기입니다. 여전히 헌금과 구제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주님과 말씀에 대한 헌신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님은 나의 헌금과 물질 사용에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 같습니까?
-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38-40절 신앙적인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고의 율법학자로 존경받던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회원으로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이들이 겸손하게 제 본분을 다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면 거만해지기 쉽고, 외식하기도 쉽습니다. 이렇듯 높아진 눈으로는 약자의 형편을 살필 수 없는 것이 필연적 귀결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도리어 그들의 율법해석은 가진 자를 옹호하고 자신이 지닌 지위를 통해 과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으로서(마 13:52) 명예욕, 소유욕, 종교적 위선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낮은 자리를 찾고, 겸손한 태도로 섬기고 있습니까?
- 기도
- 공동체-제 지식과 지위를 자랑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 열방-아프리카 카메룬에서는 무장단체 활동과 난민 유입, 민족간 갈등으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카메룬 정부와 국민이 화합과 대화를 통해 이 난국을 잘 대처하도록

마가복음 12:35-44

주제 : 참 신앙인으로 서려면 온전한 지식과 순수한 헌신을 갖고, 위선을 조심해야 한다.

핵심 질문: 참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 필요한 바는 무엇인가?

### 도입

이 당을 참 신앙인으로 살다 가도 싶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쌓인다고 절로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 지키려면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이 그 배후의 사탄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 본문

온전한 이해에 이르라 - 종교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정치 군사적인 권력으로 옛 다윗 왕국의 영화를 재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메시아는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인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임을 밝히신다.

위선을 조심하라 - 종교지도자들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아는 대로 살지는 않았다. 서기관들은 허위와 가식으로 옷 입고 높임 받기를 구했으며, 돌봐야 할 과부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았다. 처음 부터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위선적인 신앙으로 끝난다면 결코 변명할 수 없다.

순수함으로 행하라 - 주님께서는 한 과부의 작은 헌금에 주목하셨다. 부자가 낸 많은 돈보다 과부가 낸 두 렵돈의 헌금이 더 크고 귀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수단화한 헌금보다 헌신의 헌금에 주목하신다. 내 것이 라고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무엇을 드려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받으신다.

### 결론

경건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마음과 인격이 무르익을 때 은은한 향기로 전해진다. 경건을 흉내 내기 위한 수고를 그치고 속사람들을 단장하는 데 더 많 은공을 들이자 더 깊이 이해와 성찰에 이르고 순수한 헌신과 희생이 되게 하자.